

정의·평화·생명의 YWCA 운동

YWCA 목적문 이해

한국YWCA연합회

Y O U N G
W O M E N ' S
C H R I S T I A N
A S S O C I A T I O N

정의·평화·생명의 YWCA 운동
YWCA 목적문 이해

© 한국YWCA연합회, 2016

2016년 12월 10일 초판 1쇄

지은이 한국YWCA연합회
펴낸이 서진한
펴낸곳 대한기독교서회
편집책임 편집2팀

등록 1967년 8월 26일 제1967-000002호
주소 0617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14(삼성동)
전화 출판국 02-553-0873~4, 영업국 02-553-3343
팩스 출판국 02-3453-1639, 영업국 02-555-7721
e-mail cls1890@chol.com
facebook.com/clskbooks
http://www.clsk.org

직영서점 기독교서회
종로5가 기독교회관, 전화 02-744-6733 팩스 02-745-8064

ISBN 978-89-511-1851-7 03230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Seoul
Printed in Korea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YWCA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을 내면서

한국YWCA연합회는 1922년 창립된 이래 암울하고 척박한 땅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여성들의 지도력을 키워내고 기독교적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운동에 힘써 왔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 때부터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변함없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외우고 다짐하는 목적문이 단순히 액자 속 문구에 머물거나 감동 없이 읽히는 낡은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목적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YWCA 운동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상징인 목적문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문의 배경과 사상,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적문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성찰하고, 본래의 의미를 보

다 잘 파악하여 각 지역의 운동과 의미 있는 연관을 통해 깊이 있는 결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52개 지역 회원YWCA의 지도력 양성 교재로 활용되며, YWCA 운동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서로 쓰일 것입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흔쾌히 집필에 응해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획과 연구에 함께해주신 Y아카데미위원회 목적문 교재팀과 출간해주신 대한기독교서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쏟아진 애정과 땀이 이 땅에 또 하나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명혜

CONTENTS



04 발간사 책을 내면서

09 1장

YWCA 목적문의 배경과 의미 _ 최만자

39 2장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_ 최순양

55 3장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_ 이인경

71 4장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_ 이숙진

92 붙임 우리는 왜 YWCA 목적문을 보는가

1장



YWCA 목적문의
배경과 의미



최만자*

생각 열기

목적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YWCA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수십 차례 목적문을 읽거나 외울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목적문을 외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나? 누

군가가 작성해놓은 문장을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외우지 않았을까? 목적문에 담긴 내용이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지금 그 목적문의 내용을 새삼 깊이 살펴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물음으로 목적문 이해를 위한 생각을 열어본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때, 그 집단과 조직은 의식을 공유하고 뜻을 모으게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차원에서 YWCA도 함께할 목적을 목적문에 담아 늘 이와 함께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노력하고 있다.

목적문에는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 정신과 이상, 나아갈 방향과 실천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므로 목적문은 YWCA의 존재 이유를 밝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며, 더 나아가 어떤 활동이 이런 기본 정신에 합당한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하지만 목적문은 매우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문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과 역사적·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그 목적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후 그 시기에 어떤 활동이 전개되었는가를 연결해보면, YWCA 활동의 의미와 가치 또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적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문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이해, YWCA가 기반을 둔 기독교 정신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학적 해석에 의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활동이 목적문이 지향하는 대로 전개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YWCA 목적문은 1922년 창립 이래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문은 1997년 8월 제33회 전국대회에서 개정되어 채택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YWCA가 표방해온 목적문이 그동안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YWCA 활동의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목적문이 어떤 배경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중심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생각 넓히기

YWCA 목적문은 몇 차례,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YWCA 목적문 변천사

1922-3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부와 타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청년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한국어 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교적 행복을 발달케 함. 나) 청년여자로 아소기독을 신앙케 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 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1940-4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각지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연합함을 작함. 2. 각 학교 도시 및 일반 부인을 위하여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조직 및 발전케 함. 3. 청년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인으로서 단결케 하고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이상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 하며 사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1950-5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는 청년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으로서 새 단결케 하여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사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지상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2. 조선 각지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3. 각 대학교, 도시 및 농촌 부인을 위하여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1954-55	<p>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동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 데 있음.</p>
1956-72	<p>본회의 목적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p>
1973-96	<p>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p>
1997-현재	<p>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p>

이 표를 통해 창립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YWCA 목적문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동안 목적문은 6차례 수정, 변경되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운동체로서 YWCA의 사명과 지향점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YWCA 전국대회 때마다 목적문 해설 시간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목적문이 형식적인 문구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YWCA 활동의 실천적 근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적문이 변경되어 오긴 했지만 초창기부터 같은 맥락으로 유지된 핵심은 ‘청년성’, ‘신앙의 실천’, ‘신앙 안에서의 영·지·체 합일적 인간 육성’, ‘예수의 교훈 실천’, ‘온 인류의 하나 됨’,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 이상 사회 구현’, ‘이를 위한 운동의 주제’이다. 이 핵심 맥락에 각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에 대응하는 신학적 사상이 결합되어 YWCA 목적문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목적문이 수정, 변경될 때마다의 상황과 의미, 그리고 신학적 배경이 있을 경우 이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YWCA의 반응과 신학적 사상을 좀 더 깊이 생각해봄으로써 목적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나가하고자 한다.

목적문은 변화된 내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22년 창립 때부터 1953년까지로, 목적문의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 형식이 1, 2, 3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기본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1954년부터 1972년까지로, 이 기간에는 약간의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문의 근간이 통일되어 있으며 문체가

유사하다. 셋째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로, 앞 시기와 같은 맥을 유지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앞선 두 시기를 다루고, 세 번째 시기는 “생각 키우기”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922-53년 목적문(1922-39, 1940-49, 1950-53)

위의 표에서 처음 세 목적문을 한 시기로 보는 것은 세 목적문의 기본 방향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1922년부터 1939년까지 17년 동안은 창립 시기여서 단체 조직과 그 조직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조직 결성에 많은 힘을 쏟았을 것이다. 또한 이 조직이 단지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 연결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뒤이은 1940-49년, 1950-53년의 목적문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며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창립 시기에는 조직 자체에 대한 일념을 드러냈고, 다음 수정에서는 연합운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 번째 수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운동으로서의 특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창립 후 32년 동안 YWCA는 초창기부터 전력을 다한 애국, 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봉건질서를 따르던 구시대적 사고와 인간이해를 넘어 서서 새로운 인간성을 형성해나가기 위한 영·지·체 통합적 인간성의 지향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고와 인간성 지향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생활 변화에 의한 것임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목적문에서 한국YWCA가 전달받은 신학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목적문 세 개 중 처음 것을 더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처음 시작에 기본 정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 목적문은 세계적 연결을 이루려는 목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 연대 조직은 세계YWCA와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으로, 창립 당시에 이 두 조직의 영향을 받았음을 뜻한다. 이 두 조직은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 아래 출현하였고, 따라서 한국YWCA 역시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목적문을 통해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회원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알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이 시기의 목적문은 영·지·체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인간 추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생활화와 이런 신앙에 의한 사회변화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적 인격의 인간 추구’, ‘신앙의 생활화’, ‘이 땅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 등은 중세 기독교 인간관이나 세상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현대 신학적 이해로 전환되는 신학적·신앙적 이해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주된 양상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오직 사후에 천당 가기를 갈망하는—이를 영적이라 생각하여 영적 인간만을 추구하는—개인적 구원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영·지·체의 통합적 인간 추구하고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사는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을 촉구

하는 신학적 변화—이를 에큐메니컬 신학적 방향이라 볼 수 있다—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전개된 YWCA 운동은 이러한 에큐메니컬, 현대 신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기존 한국 기독교계의 신앙 행태와 사상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이다. 목적문에는 이러한 정신이 지속하여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2) 1954-72년 목적문(1954-55, 1956-72)

이 시기부터는 현재의 목적문과 같은 형태, 즉 문장으로 된 목적문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류’라는 더 넓은 세계 사회의 관점이 등장한다. 그런데 1954년에 제정된 목적문은 불과 2년 뒤인 1956년에 수정되었다. 수정된 목적문에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주체는 밝히고 있지만 1954년과 다르게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이라고 사역형으로 바뀌었고 이는 1996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사역형으로 바뀐 탓에 젊은 여성들이 운동의 대상화가 되었다. 어떤 특정 그룹이나 인물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느낌의 이 표현이 왜 20년 이상 지속되었을까? 당시 회원들의 의식이 그만큼 민주적 혹은 개혁적 의식에 이르지 못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기간 한국YWCA는 1950년 한국전쟁 중 우유 급식이라든가 전쟁고아 돌보기, 전쟁 중 홀로되어 가장이 된 여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직업, 기술 교육 등의 봉사와 돌봄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에 집중하게 되고, 국가 재건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여성 경제 활동의 확장을 통한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등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 YWCA는 무엇보다 대학YWCA 전성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또한 많은 지도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보면 이 시기의 두 개의 목적문은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작성되었다 하겠다.

1956년 수정에서 ‘인류’에 대한 개념은 ‘온 인류는 한 형제가 된다.’는 인류 연대적 의식으로 확장되어 1973년까지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온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연대적 의식이 확장된 것이다. 세계적 교류가 빈번해졌고 세계 구석 구석까지 알려지는 지구적 세계가 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서구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여 따라가기 급급하던 시절이었다. 세계YWCA와 연결되면서 인류애적 관심, 그리고 평화와 정의 추구라는 세계적 관점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YWCA의 목적문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한국YWCA 목적문의 사역형 문장이 혹시 세계YWCA 목적문의 번역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YWCA의 목적문을 잠시 살펴해보도록 하자. 세계YWCA의 목적문도 몇 차례 수정되었는데, 크게 나누어 1898년부터 1954년까지, 1955년

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의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의 목적문의 형태는 명칭(Name), 신앙 근거(Basis), 목표(Aim), 원리(Principles)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목표를 말하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우선 세계YWCA의 기본 근거를 수용하거나 따르는 여러 나라 연합회를 조직하고 발전시키고 연합하는 일을 추구함을 제시한다. 이어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수행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힘쓰는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YWCA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제시한다. 세계YWCA를 근거로 기독교 신앙이 강조되고 각 나라 연합회가 계급, 국가, 인종 간의 평화와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정의, 사랑과 모든 인간 삶의 평등한 가치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적·국제적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독교 원리를 사회적·국제적으로 증진하도록 사명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1898년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사하다.

한국YWCA 목적문의 상당 부분이 세계YWCA 목적문과 비슷하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이라는 사역형 문장은 세계YWCA 목적문 중간에 “to bring young women to such knowledge of Jesus Christ as Lord...”(젊은 여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라는 부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세계YWCA 목적문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주체보다는 대상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YWCA 목적문 문장이 꼭 세계YWCA를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YWCA의 내용을 참고하긴 했지만 한국YWCA 자체의 상황에 따라 목적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세계YWCA나 한국YWCA의 창립기는 계몽적 시기였고,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지도력을 가진 여성들이 앞장서서 대중을 이끄는 형태의 조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계YWCA의 목적문은 1955년에 이르러 대폭 수정된다. 목적의 내용을 '전문'(preamble)의 형태로 정리하고 명칭(Name), 근거(Base), 목표(Aim) 등은 간략한 형태로 언급한다. 그 내용도 매우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문장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이전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존엄'에 대한 존경과 정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기독교 목적에 헌신하는 여성과 소녀들의 '세계적 공동체'의 건설이 등장한다. 그리고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증진'을 위한 여성들의 평신도 기독교운동을 추구하는 내용도 나온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에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그 자원이 보전되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적이 새롭게 추가된다. 1999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은 필자의 해석이다. 우리의 목적문을 살피면서 세계YWCA 목적문을 잠시 참고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관심의 흐름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생각 카우기

1973년-현재 목적문 수정의 의미와 신학적 배경

1973년에 변경된 목적문은 이전 목적문의 마지막 부분에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체적 목적이 추가되어서 그것이 이전 것과 완전히 구별된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분단된 현실에서의 '평화', 사회의 인권문제 중심의 '정의'와 같은 우리 자신의 의식에 의한 평화나 정의의 추구에는 미약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정의를 극대화 요구하고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의 투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부딪히면서 정의, 평화를 위한 운동이 지속되었다. 비록 적극적인 운동 전개는 부족하였지만 목적문에 평화와 정의에 대한 문장을 추가하면서 이런 방향의 활동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YWCA는 1970-80년대 여성의 지위 향상, 복지 활동, 청소년 활동, 소비자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왔고, 1980년대 후반 들어 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일을 열심히 전개하였다.

1970-80년대 독재와 인권 탄압의 혹독한 시절을 보낸 후 1997년에 이르러 YWCA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YWCA를 내다보면서 목적문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목적문을 만들기 위한 '목적문 수정 연구팀'이 구성되었는데, 이 연구팀은 여러 차례 모여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현재의 목적문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목적문의 의미를 더 깊이 숙고하여 우리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현재의 목적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에 깊이 있는 토론과 검토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이 많이 참고되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의 목적문에서 현재의 목적문으로 수정할 때 명확하게 관점을 바꾼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을 '젊은 여성들이'로 바꾸었다

새 목적문에서 이 단체는 '젊은 여성들이' 그 주체임을 밝힌다. 이전의 목적문이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이라고 쓴 표현과 비교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이 주체가 아니라 젊은 여성 한 사람, 한 사람, 회원 각자가 운동의 주체임을 밝힌 것이다. 사역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주체로서의 젊은 여성, 회원이 YWCA의 주체이다.

2)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를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로 바꾸었다

이 부분은 YWCA의 신앙고백이다. 여기서도 이전의 '믿게 하며'를 '믿으며'로 바꾸어 주체적 신앙인임을 명시하였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추가한 '역사의 주'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창조주 신앙은 기독교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적인 창조주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라는 등식에 집중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만을 중요시 여겨 인간을 수동적·유아적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절대 하나님께 의존하는 개인구원 차원에 두었다.

그러나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는 창조주 신앙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 관리의 임무를 부여한 책임적 존재임을 뜻한다. 둘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는 평등성을 말한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인(소유주)이 될 수 없으므로 자연을 대상화하여 착취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간은 세상의 관리

자이며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적 존재임을 인식하여 우주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역사의 주에 대한 고백은 1997년 개정 당시 추가된 어구이다. 창조주 신앙이 개인적 차원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완하여 사회·역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 곧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사회 참여, 사회 정의, 바른 역사적 실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는 1970-80년대 세계와 우리나라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됨을 인정하게 하고'를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게 하고'로 바꾸었다

'자매'를 꼭 넣은 이유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가시적 존재로 있던 여성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언어적 진술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온 인간의 평등성,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종, 종족, 성, 계급 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은 하나이며, 서로 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된 존재임을 나타낸다. 인류의 인간애, 유대성, 공동체성, 상호 배려의 윤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화된 세상에서 더욱 요청되는

인간성이라 할 수 있고, 어떠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타자화하지 않고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연민의 삶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4)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를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로 바꾸었다

이것은 YWCA가 해야 할 구체적 실천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주제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제시한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WCC는 1966년 제네바 대회에서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개발이 초래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의 각종 문제가 발생한 현실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개발 정책으로 인한 인권문제의 확대와 제3세계 국가들을 냉전의 도구로 삼아 일으킨 전쟁들—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에 전쟁과 갈등, 불의가 팽배해졌음을 직시하였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날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교회가 무책임하였음을 참회하며 이제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세계 교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문제에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 대회를 통해 세계 교회는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더 나아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의 충격적인 발표 후 자연문제, 환경오염문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생명의 문제가 곧 선교의 과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핵문제는 더 이상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73년 개정된 한국YWCA 목적문에는 ‘평화와 정의의 사회’만 기술되었는데, 1997년에는 ‘창조질서의 보전’이 추가되었다. 이는 이제 선교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어떤 방식으로 지구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곧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YWCA도 이러한 신학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였다. 특히 지구를 파멸의 위협에 이르게 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의식이 1980-90년대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 쓰레기종량제, 먹을거리운동 등 생활 차원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각종 노력과 생태적 감수성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더 나아가 근래에 집중하고 있는 탈핵운동 등 온 지구와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폭넓은 범위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하나님 나라 실현의 실천운동으로 채택하고 온 생명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YWCA의 목적문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천적인 목적문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목적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문이 구성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신학적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큐메니컬 신학’, ‘창조와 역사의 주’, ‘역사적 예수 알기’, ‘여성주의/여성신학적 관점’, 그리고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 신학(생명신학)’ 등이 목적문과 함께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생각 나누기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목적문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한국YWCA는 바야흐로 한 세기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이면 창립된 지 꼭 100년이 된다. 그동안 YWCA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졌으며, 또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며 발전해왔다. 1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없는데, 그 오랜 시간 YWCA가 마음과 힘을 다해 쏟아온 활동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국YWCA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

20세기 인류가 지향한 가치의 중심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자연 중심 혹은 자연과의 공존으로, 제1세계 문화중심주의로부터 제3세계 문화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진리의 다양성 인식으로의 전환, 남성중심주의로부터 여성해방적·성평등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엘리트 지배계급중심주의로부터 민중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역사로의 전환 등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많은 가치의 변화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의, 평화, 생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목적문에 담긴 성서적·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100주년을 바라보는 YWCA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

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정신, 영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 우리의 목적문도 다시 새로운 과제를 담아 개정되어야 할 미래의 세상 앞에서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생태학적 위기, 사회정의의 위기, 경제정의의 위기가 맞물려 있으므로 JPIC 신학과 운동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채택해야 할 우리의 과제는 또 새로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 앞에서 앞으로 YWCA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들로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질문해보기

- YWCA 목적문을 처음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였나?
- 지금 YWCA 목적문이 오늘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 한국YWCA는 시대에 적합하며 성서적 진리에 따르는 활동들을 전개해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목적문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본문을 통하여 볼 때 YWCA의 활동과 목적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100주년을 맞으면서 YWCA가 사명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읽어볼 책

유성희, 「한국YWCA 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3.
한국YWCA 8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80년사」, 서울 : 대한YWCA연합회, 2006.

1898 - 1954

Aim

The 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seeks to organise, develop and unite national associations which, accepting its basis or one in conformity with it, endeavour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its principles, and to bring young women to such knowledge of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ur as shall manifest itself in character and conduct.

It also calls all national associations to promote Christian principles of social and international conduct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a right public conscience such as shall strengthen all those forces which are working for the promotion of peace and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classes, nations and races; believing that the world social order can only be made Christian through individuals devoted to the law of Christ there shall follow the extension of His Kingdom in which the principles of justice, love and

the equal value of every human life shall apply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s well as to personal relations.

목표

세계YWCA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각 YWCA 회원국을 조직하고, 발전시키고, 연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젊은 여성들을 이끌어나간다.

또한 모든 YWCA 회원국은 계급,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강화시키는 공공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와 국가 간의 일치, 세계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키는 사회적·국제적·기독교적 운영원리를 발전시킨다. 아울러 모든 개개인이 개인적인 관계와 더불어 국가적·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의, 사랑, 그리고 모든 개인의 평등한 가치가 존중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세계 사회적 사명을 믿는다.

Preamble

The 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having been founded and subsequently developed by women from many lands who regarded knowledge of the Bible and of the traditions of the Christian Church, prayer and service to other as essential elements in Christian living, sharing their convictions and being resolved to apply them in its continuing work, endeavouring to build a world-wide fellowship through which women and girls may come to know more of the love of God as revealed in Jesus Christ for themselves and for all people, and may learn to express that love in responsible action, believing that unity among Christians is the will of God, and desiring as a lay movement to make a contribution towards that unity, recognising the equal value in God's sight of all human beings, without distinction of race, nationality, class or religion, and seeking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of different nations, races and groups, hereby reaffirms these principles and declares this to its Constitution.

목표

세계YWCA는,

기독교회의 전통과 성서의 지식, 기도와 예배를 기독교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겨온 여러 국가의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고 발전해 왔으며, 그들의 기독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며, 책임 있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전 세계적 인 자매애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임을 믿고 이러한 일치를 향한 헌신을 이루어내는 평신도운동을 추구하며, 인종, 국적, 계급, 종교의 구별 없이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 인종, 그룹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헌장에 선언한다.

1995 – 2006

Preamble

The 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having been founded and subsequently developed by women from many lands who regarded knowledge of the Bible and of the traditions of the Christian faith, prayer and service as essential elements in Christian living, sharing their convictions and being resolved to apply them in its continuing work which women and girls come to know more of the love of God as revealed in Jesus Christ and to express it in responsible action for all people, endeavouring to build a worldwide community of women and girls committed to the Christians purpose of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believing that unity among and respect for the dignity of all people is the will of God, and desiring as a lay movement to promote unity among Christians and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sing the equal value in God's sight of all human beings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e. race, nationality, class or religion, and seeking through respect and understanding, to promote the rights of all people, accepting that the universe is God's creation for all and that

its resources must be used with integrity, hereby reaffirms these principles and declares this to its Constitution.

목표

세계YWCA는,

기독교회의 전통과 성서의 지식, 기도와 예배를 기독교생활의 필수요소로 여겨온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고 발전해왔으며,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기독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나타내며, 정의, 평등과 자유의 기독교적 목적에 헌신하는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모든 인류 안에서의 조화와 인류 존엄성의 존중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세계 화해와 평화 증진을 위한 여성 평신도들의 기독교운동으로서 어떠한 종류, 즉 인종, 국적, 계급, 혹은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과 이해를 통해 모든 인류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우주의 모든 만물이 보전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헌장에 선언한다.

2007- 현재

Preamble

Founded by women from Christian traditions around the world, the 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World YWCA) is based on faith in God the Almighty,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Its vision is of a fully inclusive world where justice, peace, health, human dignity, freedom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are promoted and sustained by women's leadership. The World YWCA recognises the equal value of all human beings. Towards this end, the World YWCA advocates and supports volunteerism, membership, diversity, tolerance, mutual respect, integrity and responsible accountability. The strength and solidarity of the World YWCA is inspired by the faithfulness of its leaders, past and present, whose service to humanity advances the purpose of the World YWCA.

목표

전 세계 기독교여성들이 설립한 세계YWCA는 성부·성자·성령의 믿음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세계YWCA의 비전은 여성들의 리더십에 의해 정의, 평화, 건강, 인간 존엄성, 자유, 그리고 환경보전이 지속되고 증진되는 포괄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세계YWCA는 모든 인류의 평등한 가치를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YWCA는 자원 활동, 회원 활동, 다양성, 관용성, 상호존중, 통전성, 책임성을 주창하고 지지한다. 세계YWCA의 힘과 연대는 과거와 현재의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고무되며, 이들의 인류를 위한 봉사는 세계YWCA의 목적을 증진시킨다.

2장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 왜 젊은 여성들이 주어인가 -



최순양*

생각 열기
YWCA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꿈이 있는 여성이 YWCA의 주체여야 할 것이다. 목적문에 나타난

대로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젊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실천하려는 ‘열정’이 있는 여성을 ‘젊은 여성’으로 상징하는 것이 한국YWCA의 현실과 더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YWCA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응원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는 이제까지 여성들을 주체의 자리에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 있고 힘있는 사람을 지도력과 주체의 자리

에 세워왔다. 교회의 경우 여성 신도가 전체 신도 수의 70-80%를 차지 할 정도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앙심이 깊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장로 등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여성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성서, 신앙교육, 교리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가부장’인 아브라함처럼 친족과 익숙한 곳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된다. 나중에 귀하게 얻은 아들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매정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보기이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사실 성서를 통해서도 들리지 않는다.

‘사모님’이 차린 식사를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해준 집안을 빠져 나온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집안일이 주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 없다. 목사 사모로 살아온 한 여성이 ‘여성학’을 접하고 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남성의 경험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자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이자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¹⁾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이 누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

1) 양혜원, 『교회 언니, 여성을 말하다』(서울 : 포이에마, 2012), 54.

서를 이해하는가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목적문에서 보듯이 ‘젊은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 여성들의 삶과 생각이 교회를 살아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설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중받는 존재로,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감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의 관점에서 신앙하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YWCA의 활동 역사와 방향이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운동’, ‘교회여성운동’에서 YWCA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생각 넓히기

‘젊은 여성들이’ 주체인 (여성)신학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보면 무언가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

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향하였던 것일까?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은 나이에 낳아 금이야 옥이야 키웠을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나서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사라는 어디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을까? ‘사라’는 과연 ‘모성애’와 ‘신앙’의 결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성서의 인물들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삶의 중요한 문제들로 고민했겠지.’ 하고 상상하며 공감하게 한다.

이렇듯이 여성신학은 이제껏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눈으로 바라본 기존 신앙에 더해 ‘여성’의 관점을, ‘여성들의’ 경험을 상상해 보고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신학의 초기 단계에서 발달된 이론들은 ‘여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은 남성에 대한 제2의 성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시몬 드 보부아르가 그녀의 책 『제2의 성』(194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체로서의 남성과 타자로서의 여성'에서 나온 것이다.²⁾ 즉 모든 학문과 문화의 주체는 사실상 남성이었고, 여성은 남성의 관점과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학적 질문을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꾸어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신앙고백 속에서 과연 그 '인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11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12절)고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인간은 '여자나 남자나'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는 신앙고백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성서구절은 초기 기독교의 평등의식을 잘 보여주지만, 후대에 이르러 바울의 이러한 동등한 남녀관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골로새서 3장 18절처럼,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거나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 역할의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바울이 로마의 가부장제와 노예제에 타

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엘리자베스 피오렌자, 최영실 등) 이런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초기 기독교의 성 평등사상이 미국의 가부장제와 한국의 유교정신 등과 결합되면서 그 정신이 왜곡되어서 여성을 '제2의 성'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YWCA는 열악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여성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표방해왔고 또한 실천해왔다.

기독교 교리와 성서, 여러 가지 신앙 서적과 신학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부아르가 발견한 것처럼, 여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주체로 기능해온 사람들은 사실상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남성'이라고 상상해본다면, 하나님은 웬지 나를 위로해주시고 아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보다 저기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다가 가끔씩 숙제 검사하듯 찾아오시는 그런 분처럼 그려지기가 쉽다. 물론 개개인의 남성,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온 인간의 '원죄' 이야기를 할 때면, 여성들은 호기심으로 출발해 남성까지 타락하게 만든 그 교만과 허영심을 회개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원죄'를 교만과 불순종이라 정의해왔고, 그 원형을 아담이 아닌 하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참고,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라고 밥 차리고 청소하는 여성들에게

2)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2), 41.

회개해야 할 '교만'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다. 삶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아담이 행한 자기중심적 '교만'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교만보다는 오히려 '나를 소홀히 여겼음을 한번쯤 돌아보고 나를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남편'(혹은 가족)을 위한 기도로만 내 신앙을 채운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이처럼 여성신학은 '여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정말 와 닿을 만한 '구원'은, '자유'는 무엇인가? 여성에게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신학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여성신학에서도 새로운 문제제기가 등장했는데, 초창기에 '남성에 대한 여성',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에 강조점을 두던 것과 달리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연 '여성'은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여성학은 북미유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미유럽의 입장에서 남성에 대한 제2의 성으로서 여성을 분석했지만, 흑인 여성을 '노예'로 차별한 여성 간의 갈등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흑인 여성들만이 가진 성 차별과 인종 간의 갈등을 교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머니즘(Womanism)이 등장했다. 더불어 히스패닉 여성들에게서

는 무에리스타(mujerista) 신학, 그리고 아시아신학 등 유색 인종의 여성신학이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여성'이 여성으로 경험하는 현실에서 인종, 경제, 계층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우머니즘의 시각을 가진 여성신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 가려진 인물 '하갈'에 주목하여 성서를 해석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사라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인종과 계층 갈등으로 인해 추방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당한 하층민인 '하갈'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백인 주류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흑인 여성들의 '생존'의 이야기를 하갈에게서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던, 그래서 응답을 받은 하갈의 신앙에서 흑인 여성들의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문제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여성'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사회의 비주류, 약자 중의 약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강조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중에서도 어떤 여성이 특별히 더 고통받고 있는지의 문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이다.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는 면에서 여성신학은 '약자들의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신앙이다.

생각 키우기

YWCA 운동과 목적문의

상호성 : YWCA운동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여성신학적 평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라는 목적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신앙의 주체로 고백하고, 다양한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여성

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만나가기 위해 실천하는 신앙운동이 될 것이다. 여성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젊은 여성들’이 상징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한 모든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목적문에 나타난 이러한 신앙고백이 앞서 소개한 여성신학적 물음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YWCA의 활동 역사를 살펴보면, 초반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기본권, 교육, 조혼 및 공창 폐지운동 등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친족상속법 등을 전개했고, 196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인권 보호운동을 전개했다. 1973년에는 여성노동자 의식교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운동(남영나일론) 등 노동운동에도 착수했다. 여느 여성단체 못지않게 여성들의 기본권을 확립해나가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산층 여성’ 지향성 혹은

‘시민운동적 성격’이 생기게 되었다. YWCA가 문자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연령적으로, 계층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여성을 위한 ‘정의’(바르게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여성의 바른 삶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YWCA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건전한 삶과 소비운동을 촉구하는 운동 등을 전개했다. 사회 정화를 촉구하면서 그 역할을 어머니인 여성이 담당하자는 슬로건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YWCA는 여성의 주체성과 더불어 여성의 ‘어머니 됨’이라는 성 역할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여성 됨’을 세워나가는 면에서 주체적인 면을 강조하며 동시에 기존의 성 역할도 교육한 것이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평화와 통일에 방점이 찍힌 활동이 전개되었다.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한민족여성대회를 개최하며 여성이 중심이 된 평화와 통일운동을 펼쳤는데, 이러한 활동은 여성들의 성 역할이나 어머니로서의 실천 과제 등의 경계를 넘어서 폭넓은 사회 지향적 운동으로 YWCA 운동이 확대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운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방향은 앞선 ‘시민운동적’ 운동 혹은 ‘여성의 성 역할 강조’ 등에 머물지 않고, 보다 더 넓은 사회적 이슈들에 여성들이 개입하고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

고 매우 적극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07-09년 혹은 최근까지 진행된 YWCA의 여성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운동은 여성신학의 제2의 흐름(우머니즘, 아시아신학 등의 등장)처럼 한국 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예컨대, 2007-09년의 정책 계획을 보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육문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운동(여성, 육아, 먹을거리, 아시아여성연대)이 계획되었다. 일반적인 여성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에까지 그 관점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YWCA가 추구하는 여성운동이 ‘약자 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 등은 ‘약자 여성’을 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지역은 이주 여성들을, 어떤 지역은 저소득층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자문해보아야 한다.

2016-17년의 정책에도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돌봄정의의 5대 과제가 설정되었다. 이를 볼 때 YWCA는 그 어떤

여성 단체보다 앞서가는 기관으로 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성 인지에 관한 교육 활동은 의식화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의식이 없는 여성에게도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성 인지 정책과 여성폭력 예방이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면서 얼마나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평가해보자면 YWCA의 활동이 전반적인 ‘여성’ 관련 이슈와 사회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채워줄 수 없는 ‘기독교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YWCA가 한국 여성사와 교회사에서,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해온 그 의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들을 중심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여성에게 초점을 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산층 이하 여성에게 초점을 둘지의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YWCA의 정책 계획서나 활동 제안에서,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대중적이고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면 비지식인 여성들에게도 한층 더 폭넓게 접근 가능한 운동이 될 것이다.

생각 나누기
생각해볼
문제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함께 고민해볼 문제를 몇 가지 물음 형식으로 나열하고자 한다.

질문해보기

• YWCA의 회원으로서 '나'는 어떤 여성들을 동료로 초대하려고 하는가?

'젊은 여성들'은 물론 특정 여성을 지칭하고 있지만, 비단 문자적으로 '젊은 여성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여성신학적으로 고민해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YWCA는 다양한 계층의 기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너무 계층적으로 치우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다룬 여성신학의 지향점이 '약자를 향한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여성들이 그 주체로 설지라도 우리가 지향하고 찾아가야 할 여성들은 특정한 얼굴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 교회의 여신도로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신앙교육을 통해 나는 어떤 한국교회 여신도가 되기를 꿈꾸는가? YWCA의 회원으로서 나는 교회를 보다 더 성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그리고 '사라'의 입장이 아닌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성서 이야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고백과 성서이해 방식이 여성의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데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YWCA가 비록 기독교 단체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기피하는 젊은 여성들, 결혼과 가족적 삶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개입의 몸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에서는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성 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에게만 '애찬 및 설거지'를 담당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기존 교회가 제시하듯이 '여성'을 '가족'이나 '가사'에 관계해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여성으로 재정의하면서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YWCA 운동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 여성인 '나'를 주체로 세워나기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약자 여성들은 누구인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해보자. 나와 '그녀들'을 주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YWCA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주민 여성'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약자 여성'을 위한 실천을 잘해오고 있지만, 더 발전된 활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때로는 이주민 여성이 될 수 있고, 또한 전쟁 성노예 피해 여성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약자 여성'의 얼굴 또한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약자 여성'에 주목하면서 그들을 주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읽어볼 책

엘리사벳 A. 존슨, 『하나님의 백한 번째 이름』, 함세웅 옮김, 서울 : 성바오로딸수도회, 200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2.
양혜원, 『교회 언니, 여성을 말한다』, 서울 : 포이에마, 2012.

3장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 한국YWCA와 에큐메니컬 운동 -



이인경*

생각 열기
YWCA는
왜
에큐메니컬한가?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행정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죽음의 불(핵 발전)을 끄

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자연 에너지)을 켜자!”

“여성폭력, 어떤 이유로도 안 돼! #No Xcuses”

“Come & See,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유전자조작농식품(GMO)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녕하십니까?”

이 문구들은 한국YWCA가 주도적으로 또는 타기관과 연대하여 전개해온 사회운동과 프로그램에 사용된 구호들이다. 왜 한국YWCA는 사회운동과 프로그램을 벌이는가? 왜 기독교운동 기관이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가? 왜 한 개인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정책의 전환까지 촉구하는가? 왜냐하면 한국YWCA는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개인,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일 수 없다. 시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인류의 문제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 이웃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상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과제가 요청된다. 즉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아우르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어린이 돕기, 윤리적 소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 상, 다래교실, 생명 꿈나무 돌봄센터, 팔레스타인 평화주간 기도회, 8·15기념 한반도 평화통일염원 기도회, 길 위의 평화학교,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 서명운동, 생명포럼, 정의포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YWCA 비폭력주간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 탈핵 불의 날 캠페인, 2015 국제여성 평화건기대회(Women Cross DMZ) 등 한국YWCA가 주관하거나 연대하여 전개한 사회운동과 프로그램은,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한국YWCA의 에큐메니컬 운동 정신에 부합한다. 한국YWCA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년운동체, 여성운동체, 기독교운동체, 회원운동체, 국제적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한국YWCA 정체성의 토대인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WC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 넓히기
에큐메니컬
운동

1)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한 말로,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the whole inhabited world)이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신약성서에 사용된 의미와 역사적 흐름 속에 규정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연합운동’ 또는 ‘교회일치운동’으로 불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운동은 첫째, 교회 전체와 관련된 운동, 둘째, 교회의 전 세계적 선교 확장과 관련된 운동, 셋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 간 또는 여러 교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와 하나 됨에 관련된 운동, 넷째, 기독교의 하나 됨에 대한 자각과 그 바람을 표현하는 운동, 다섯째, 창조세계 전체의 보전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치’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소위 ‘교회일치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치의 내용과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일치운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읍살라 총회(1968) 이후로 WCC 내에서 일치의 내용과 범주에 대한 질적인 비약이 있었는데, 이는 에큐메니컬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목표는 협의의 ‘교

회 일치’일 수만은 없으며,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통한 인류의 일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한국YWCA는 협의의 ‘교회 일치’로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통한 인류의 일치’로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하겠다.

2) 에큐메니컬 운동의 형성 배경

에큐메니컬 운동은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세계기독교학생연맹(The World's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구미 각국의 기독교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개신교 교파들이 1910년 에든버러에서 세계선교대회로 모여 교단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분파적 경쟁을 자제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보편성을 찾아 교파적 분열을 배제하자는 취지 하에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국제선교협의회는 1961년에 WCC에 가입하여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김활란은 1928년 제3차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 한국YWCA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사회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념을 YWCA에 접목시키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대회로 평가된다. 이 대회 참석 후 김활란은 YMCA의 「청년」(1928년 11월호)에 “기

독교의 사명에는 개인 구원보다 일반 사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WSCF는 1895년 스웨덴 바드스테나에서 개최된 청년집회에서 세계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영적 생활을 강화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WSCF는 기존의 기독교청년운동 단체인 YMCA와 YWCA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창립되었고, YMCA와 YWCA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WSCF는 국제기독교학생들의 신앙적 교제를 통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에큐메니컬 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후에 WSCF 의장단들이 모두 WCC의 임원이 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북경 WSCF 회의에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이 참석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여성대표가 공식적으로 세계대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운동은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을 위한 헌신’이라는 정의가 도출되었으며, 이 대회에 참석한 김필레와 김활란은 YWCA 조직의 목적과 취지를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사회복음운동, 독일의 복음사회의회, 영국의 기독교사회연맹, 프랑스의 사회문제 대책위원회 등 기독교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운동은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3)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개

앞에서 언급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형성 배경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복음선교의 일치성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과, 둘째로 기독교 진리의 사회적 응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향은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으로, 두 번째 방향은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으로 나타나며, 이 운동은 WCC 내에서 각각 ‘신앙과 직제 분과’와 ‘삶과 봉사 분과’를 통해 이어졌다.

4) 에큐메니컬 운동의 사회윤리 주제

(1) 책임사회(The Responsible Society)

‘책임사회’는 1948년 제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제안되어 이후 거의 20년간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핵심 개념이었다.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책임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인간의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국가와 사회의 어떠한 경향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책임사회의 자유란 정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유이다. 책임사회란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의 사용에 의해 복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책임사회는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한 개념이다. 책임사회는 구체적인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양쪽 모두를 비판하되 각 사회체제가 자유와 정의와 질서의 균형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사회윤리적 기준이다.

(2)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JPSS)

1950년대에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독립국 등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 인한 로마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의 관계 변화, 북미의 흑인민권운동, 반전운동, 인구의 폭발적 증가, 환경파괴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가 ‘교회와 사회’ 제네바 대회(1966)와 제4차 워싱턴 총회(1968)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책임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침내 제5차 나이로비 총회(1975)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윤리사상으로서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A 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를 제안하였다.

JPSS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 안에서)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원칙 또는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와 사회구조를 평가하고 변화시키는 기준이다. JPSS에서 강조되는 정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뿐

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의 참여를 통해, 그리고 유색인종과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볼 때, 참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지속가능성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주제였다. 무제한적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오남용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사회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인식한 선진국들은 제한된 성장과 제한된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저개발국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3)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JPIC)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교회와 사회’ MIT대회(1979)와 ‘핵무기와 군비축소’에 대한 암스테르담 국제공청회(1981) 이후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환경 파괴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인간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JPSS에서, 인간만이 아닌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주로부터 본질적 가치를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는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으로 에큐메니컬 사회윤리의 주제가 전환되었다. 전 세계적 무기경쟁, 경제적 지배와 착취, 생태계 위기로 요약되는 MIT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6차 밴쿠버 총회(1983)는 JPIC를 제안하였다. JPIC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생각 키우기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은 ‘연민’과 ‘환대’로 요약된다. 연민(compassion)이란 ‘함께 아파함’(suffer with)을 뜻한다. 연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

나님은 피조물들이 당신이 부여한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침해당할 때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기독교의 뿌리 경험이라 일컫는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제국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이다. 히브리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 때문이었다. 성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찬 절규를 듣고 ‘연민의 진통’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바로 이 연민의 진통이 구원과 해방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연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하밈’(rachamim)은, 생명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 중 하나인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헴’(rehem)과 어근이 같다. 마치 자궁의 진통이 시작됨으로써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연민의 진통은 억압받던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수는, 살아 있되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리셨다.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시혜를 베푸는 것인 반면, 예수의 행위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병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병자뿐만 아니라 천대와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연민에 가득 찬 예수의 격려와 치유를 통해 당당한 한 인간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신약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의 연민은 ‘무조건적인 환대’로 나타난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절대적 환대’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란 예상치 못한 방문과 방문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는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를 행하고 가르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가 삶으로 살아내고 가르치신 연민과 무조건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의 국적, 신분, 계층, 종교, 성별, 정치적 입장 등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연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며 돌보았다.(무조건적인 환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의 연민의 마음과 무조건적인 환대의 행위를 배우고 행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차원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상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아우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기독교윤리는 기독교사회윤리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사회윤리는 그리스도인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의 도덕성과 성서에 서만 찾지 않는다. 기독교사회윤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의 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결과를 중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의 변화까지 다룬다. 또한 기독교사회윤리는 성서를 우선적인 근거 자료로 삼지만, 성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 철학적 원리와 방법, 인문·사회·자연과학의 학문적 연구,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경험 등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는 에큐메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사회윤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게 된다.

생각 나누기 실천적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 또는 신앙의 생활화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기독교사회운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형성되는 배경이었으며, 그 정신은 WCC의 ‘교회와 사회 분과’로 이어져 교회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촉구하였다. 출발부터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 정신에 기초하여 창립 100년의 역사를 맞이할 한국YWCA는 다양한 국적, 계층, 종교, 성별,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며, 그들과 ‘나눔’으로써 ‘평화’를 이루고, 그들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급변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문제들은 한 개인,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일 수 없을 것이다. 한국YWCA가 에큐메니컬 운동 정신에 입각하여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응답하며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보자.

질문해보기

- 2015년 9월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은 그간 난민에 대해 냉담했던 국제사회의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우리로 하여금 난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민이란 사전적 의미로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고향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사상의 차이로 인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부자가 된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양한 난민들을 만나게 된다. 정치난민, 환경난민, 경제난민, 사회문화난민 등.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신 연민과 무조건적인 환대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또한 한국YWCA가 전개할 수 있는 운동과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자.
- JPSS가 환경파괴로 위협받게 된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반면, JPIC는 인간만이 아닌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주로부터 본질적 가치를 부여받았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JPIC에 기초하여 전개해온 생명운동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라고 평가된다. 인간과 피조세계(생태계) 다른 피조물(비인간 생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자.
-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한국YWCA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할 운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보자.

더 읽어볼 책

-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 새물결플러스, 2015.
- 김중기. “에큐메니칼 신학과 사회 이념.” 『신앙과 윤리』. 서울 : 종로서적, 1986. “세계교회 연합 운동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방법론적 분석 : ‘책임 사회의 이념’을 중심으로.” 『신앙과 윤리』. 서울 : 종로서적, 1986.
- 워거만 · 필립. “에큐메니칼 사회윤리.”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임성빈 옮김. 서울 : 한국장로출판사, 2000
- 유석성.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회윤리.” 『기독교윤리학 개론』.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이인경. 『에큐메니칼 페미니스트 윤리』. 서울 : 한들출판사, 2005.
- 이형기. “WCC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신학.” 『교회사학』 제10권 1호(2010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편.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 서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9.
- 한국YWCA 8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80년사』. 서울 : 대한YWCA연합회, 2006.
- Ans J van Der Bent. *Commitment to God's World : A Concise Critical Survey of Ecumenical Social Thought*. Geneva : WCC, 1995.2.

4장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 어떻게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



이숙진*

생각 열기

부정의, 반평화, 반생명의 신(新)신분사회

YWCA 운동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 창조질서의 보전(保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존중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간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하청업자에게 매 값을 던지며 구타한 재벌 3세, 차디찬 바닥에 아르바이트생의 무릎을 꿇게 만든 백화점 VIP고객, 화를 참지 못해 승무원을 모욕하고 수백 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의 회항을 지시한 항공사 소유주의 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한다. 돌진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가 펼쳐진 듯했다. 비루한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듯했다.

그러나 무한경쟁 사회의 능력주의는 개천을 떠난 자들이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면서, 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다. 또한 거기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용들은 자신이 떠난 개천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새로운 신분사회 구축에 급급하다. 상속과 증여에 의한 자산 증식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통계수치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신분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신(新)신분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성공과 실패가 오직 자기 자신에 달렸다는 자기계발의 신화를 통해 은폐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에는 금수저, 은수저를 쥔 용들이 수천억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척박한 개천에는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희망까지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들이 떠밀리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사이에 우울증과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우리를 옥죄는 것은 단지 사회적 불평등만이 아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주한미군의 살아 있는 탄저균 무단반입 등 일련의 사건이 말해주듯, 분단 70년이 지난 한반도는 여전히 전장이다.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북한체제와 냉전적 안보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는 남한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다. 도심에서 세균무기를 실험하는 미군의 위험천만한 행위가 묵인되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생명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전대미문의 소비생활로 인하여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살모넬라 DT104, 초미세먼지, 문명병의 창궐 등 문명의 재앙들은 우리

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오늘’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내일’의 후손이 누려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공장과 발전소가 세워진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 무관심한 채 에너지를 마구 만들어 쓴다면, 생명을 살리려는 꿈은 백일몽이 되고 말 것이다. 심화된 사회 불평등, 분단이 초래한 반평화적 군사문화,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구이웃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삼는 신자유주의... 이러한 사회를 돌리는 건 누구인가? 바로 이 순간 현대문명이 주는 온갖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소비중심적인 삶의 방식과 단절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살리는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돌이켜보면 설립 초기부터 YWCA 운동은 존중받지 못한 삶에 관심하면서 정의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한 사회관습에 도전했고 이 전통은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여성의 인권보호를 꾀하는 ‘한 하늘 한 땅 운동’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다문화운동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서도 YWCA 회원들의 반전·탈핵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아나바다운동을 비롯한 실생활운동은 창조질서 보전과 맞닿아 있다. 그러하기에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는 YWCA 목적문은 당위적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결연한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생각 넓히기
생명을 살리는
창조질서의
보전

한국YWCA 목적문은 몇몇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YWCA의 목적문을 그대로 본 뜬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

한 과제와 씨름한 결과물이다. 그러하기에 설립 이래 몇 차례 수정된 YWCA 목적문에는 시대적 부름에 대한 YWCA 회원들의 응답이 담겨 있다.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이라는 1973년의 목적문에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과제가 추가된 것은 1997년이다. 굴곡진 근현대사가 주조한 정치경제적 부정의와 반평화적 군사문화는 창조질서의 심각한 훼손과 깊이 연동되었다고 인식한 까닭이다.

YWCA의 탈핵운동에는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YWCA의 목적문이 집약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핵발전소는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에 들어선다.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현은 경제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10개의 핵발전소가 있었고, 추가로 더 건설될 계획이었다. 우리나라 원전 지역도 마찬가지다.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and 발전소는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하며, 이때 위험도 함께 이전된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사용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으며 비교적 안전한 거주 환경에서 사는 부유층에 비해, 가난한 이들은 위험한 시설과 물질에 훨씬 가깝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핵 발전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응축되어 있다. 물론 제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중국에는 그 누구든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말이다.

핵 발전을 의미하는 원자력 발전은 “미래를 여는 에너지”라는 모토로 국가의 주요 기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현재, 극장 광고용 ‘블랙아웃 시티’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광고는 경제발전과 생활전기를 위해 원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명도시로 남아 있게 만든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파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한 나라이다. 잇따르는 원전 사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지진으로 인해 파국의 가능성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인접한 중국의 무절제한 원전 건설과 북한의 핵 발전의 사고 가능성 역시 우리를 위협한다. 원전 건설과 가동 중 잦은 사고와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의 불완전한 처리 등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생사여탈과 직결된 긴급 사안이다.

후쿠시마 이후, 유럽의 시민들과 당국은 탈원전을 선택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 폐지를 결정했고, 대규모 반핵 집회가 열린 스위스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끝나면 2034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이탈리아는 국민투표에서 94%의 국민이 원전에 반대하여 신규 원전 발전계획을 취소했고, 영국은 더 이상의 핵 재처리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리를 높인다. 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재

해 발생 시 사고에 더욱 취약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수명 연장을 피하고 추가 건립을 책동하고 있다. 원전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탓이다.

한국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2014년 3월 11일 “NO More 후쿠시마!”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3주 기였던 그날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 정오에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핵의 위험성을 부단히 알리고 있다. “800만 부울경 주민의 생명과 전 국민의 안전문제, 고리 1호기 폐쇄하라!”는 외침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던 탈핵운동은 결국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영덕 군민의 압도적인 유치 반대와 여타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이끌어낸 승리이다. 완전한 탈핵사회가 될 때까지 “2029년 핵발전소 36기, 국민생명 담보하는 원전 확대 정책 중단하라!”는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YWCA의 탈핵운동은 더 이상은 우리의 일상이, 아무 죄도 없는 자연환경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식물이 파괴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다는 결단이다. 요컨대 창조질서를 보전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이다. 이 결단은 이웃들에게 원자력의 은폐된 신화를 알려주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창조세계를 회복하며, 이윤보다도 생명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시민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건강한 시민 되기로 이어진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WCC의 밴쿠버 총회(1983) 때였다. 바로 직전의 옹살라 총회(1968)에서는 냉전체제로 인해 심화된 각종 차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보전의 문제가 정의·평화의 과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르익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밴쿠버 총회의 JPIC 선언이다. 정의와 평화 문제에 한정되던 선교의 관심이 지구이웃의 존립과 직결된 ‘창조세계 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후 서울 JPIC 대회(1990)를 통해 개발주의에 편승하던 기독교의 과오를 반성하였고, 훼손된 창조질서에 대한 청지기 임무를 재확인하였다.

최근 WCC 부산 총회(2013)에서는 “우리는 창조세계가 멸망되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다. 땅과 우리의 몸은 모두 성령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강령을 제창하였다. 요컨대 지구가죽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인간만 구원받을 수 없고, 생태 정의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으며,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요구를 존중하는 새로운 겸손 없이는 구원이 올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 교회의 핵심 관심사는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으로 수렴된다.

YWCA 목적문에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세계 교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생명이 참담하게 파괴되는 한복판에서 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세대가 미래를 통째로 포기할 정도로 사회적 불안정성

은 높고, 분단 70년이 지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있으며, 국토 면적 대비 세계 최다의 핵발전소는 언제 우리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 이러한 절망의 나라를 생명 존중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 YWCA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이라는 주제 아래 추진하고 있는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돌봄정의운동 등의 5대 과제는 YWCA 목적문에 따른 실천이자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타락했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과 동시에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존재이다. 이러한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긴장 속에서 YWCA 운동은 정의·평화·생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 키우기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YWCA의 정의·평화·생명 운동을 신앙적 언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성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법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보다도 부유한 자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구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지역의 법인 리팻-이스탈 법전(1875 BC)의 “남의 과수원 침범은 은 10세겔을 배상하라.”와 함무라비 법전(1700 BC)의 “남의 과수를 훼손하면 그루당 ‘은 2분의 1미나’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인간의 법이란 가진 자, 곧 법을 만드는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서는 가진 자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신 24:19, 이하 새번역)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날 품삯은 그 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 품삯을 그 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날 품삯을 못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

가 돌아갈 것입니다.(신 24:14-15)

이러한 법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 성서는 또한 가난한 자에게도 말한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신 23:24-25)

생존의 목적이 아닌 경우 남의 소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는 소유권과 생존권이 충돌할 때, 생존권의 손을 들어준다. 이러한 법들에는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기므로 어느 인간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건설을 꾀하는 YWCA 목적문은 성서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과 같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운동의 지향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경고로 ‘핵 보복무기 3대 축’으로 불리는 미군의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였다.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검토 중이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남북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

고 두려움에 떨게 했다. 3대 세습체제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다. 남한에는 전쟁억지, 평화유지의 명목으로 더 무시무시한 살상용 무기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속속 반입되고 있다. 미군에 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구축, 살아 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은 결과적으로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과연 핵 억지론이나 군사적 방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까? 군사적 강경대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 이후 남측의 대북 교류와 협력 중단 등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결국 당해 11월 연평도에 포격이 쏟아졌다. 한국전쟁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한 군사력이 전쟁과 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 만약 이라크 전쟁처럼 체제 전복을 꾀한다면, 궁지에 몰린 북한체제가 최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사지로 몰리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는 자명하다. 한반도를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은 목적도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협상력은 평화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성서는 말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사 2:4b, 미 4:3b)

도로테 쥘레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평화운동의 성서적 근거로 이 구절을 제시한다. 살생의 무기를 생명살림의 도구로 바꾸고 전쟁 훈련 일체를 중지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어떻게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서며, 최신예 무기 수입과 국방비 증대로 전쟁을 막겠다는 정책에 열렬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전쟁수행과 더불어 매일 새벽 성서읽기와 기도생활에 열심이였으며 그의 백악관 전쟁 참모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적극 권장했다고 한다. 신앙인이던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라크를 초토화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아무런 생존수단을 갖지 못한 채 궁지에 몰린 팔레스타인 청년과 소녀/소년들과 이슬람 테러집단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의 자살 테러를 비난하고 그들을 악의 세력으로 정죄한다고 해서 이 끔찍한 비극이 중단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갔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어떠한 모습인가? 성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나침판과 지도이다. 길을 잃었을 때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강자(이리, 표범, 사자)가 약자(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어울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세상(사 11:6-9)이라고 말해 준다. 요컨대 예언자가 말하는 평화는 개천의 수많은 ‘을’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며 ‘갑’의 먹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한 억압, 착취, 차별, 소외 등의 악을 묵인하면서, ‘을’의 저항을 반평화적이라고 단죄하고 ‘갑’이 만든 제도와 법을 준수하라고 겁박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이다.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는 분명 힘에 의한 평화의 대척점에 있다. 요컨대 남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사자처럼 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다. 상대를 굴복시켜 침묵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의한 피 흘림이 그치고 피 묻은 옷이 불태워진 다음,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통해’ 평화가 실현된다.(사 9:4-6)

정의, 평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대개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모순이 맞물려 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철저한 타락으로 인해 죄짓지 않을 수 없다.”(non posse non peccare)라는 말은 종종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세상 악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영적 타락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거대한 비도덕적 사회구조의 문제는 은폐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종종 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할 때가 있다. 예컨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야만적인 악으로 폄하하고 일제와 협력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선교사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신앙적 열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먼 나라 조선까지 왔다. ‘야만의’ 조선인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더 먼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일제에 동조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살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열강들이 이웃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면서도 개척자 담론이나 문명화 담론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잘 포장한 시대였기에, 신앙적 순수성만으로는 시대의 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수 있다. 모두가 탐욕의 전차를 탈 때 나 홀로 하차하기도 어렵지만, 온갖 명분으로 포장된 탐욕의 민낯을 직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근사한 포장지로 불의와 죄악을 감싸는 짓은 지금도 여전하다. 신자유주의는 탐욕을 열정이나 자기계발의 동력으로 번역하면서 그 악마성을 순화시켰다.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농업기술은 녹색혁명이라는 대의로, 육식 탐닉은 힘센 몸에 대한 신화로, 원자력의 악마성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선전으로, 종교정복주의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선교담론으로... 그렇게 다양한 명분과 수사는 구조적인 악을 아름답게 포장해왔다. 하물며 윤리적·미학적·신앙적 가치까지 획득한 오늘날 소비자본주의의 악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대결할 수 있을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경고했듯이 사회악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생명존중의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천진한 주

문만 외운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공모자가 되기 십상이다. 가라 앉는 배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책임자들은, 청문회에서 모두 한결같이 각자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상부의 명령에 순응하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홀로코스트라는 무시무시한 악의 시스템을 돌린 것처럼 말이다.

부정의하고 반평화적이며 반생명적인 체제의 공범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사느냐, 곧 존재의 문제이다. 성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사 11:7b) 존재로 변해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가르쳐준다. 이리와 사자가 소와 양의 먹이인 풀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먹이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함의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는지 세심하게 관심할 때 우리의 존재는 변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더 저렴하면서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우리의 소비습관은 가난한 나라 노동자의 생활 터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국적 의류산업체가 소유한 대형 면화 농장에서는 전 세계 농약의 10%, 살충제의 25%를 사용한다. 옷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생식 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들어 있다. 그럼에도 구매자가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맞추느라, 환경 비용을 묻지 않아도 되는 힘없는 나라에 그대로 방출한다.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하루살이 목숨 같은 종이제품을 만드느라 지구의 가

장 오래된 유기물을 벌목한다. 아마존을 비롯한 공유지의 24%는 밀집 사육되는 가축의 사료를 위해 벌목된다. 그 결과 숲에서 공생하던 크고 작은 수많은 생명체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아마존 밀림 그늘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거주민들은 쏟아지는 강렬한 햇빛에 적응하지 못해 시력을 상실한 채 대도시 빈민굴로 흘러들어가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전락한다.

무소불위의 반생명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에는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 깊은 책임의식은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존재방식은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메커니즘에 제동을 거는, 장기전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저항이다.

하지만 뿌리 깊은 이 불평등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성서는 개인의 탐심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생명존중의 원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준수를 환기시킨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쉬게 하는 생명보호법인 안식일, 안식년법, 희년법의 함의를 살펴보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종, 가축들까지도 노동으로부터의 쉬을 명령하고 있다.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법(Jubilee)은 노예 해방 및 채무탕감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

만이 아니라, 너희 집집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출 20:10)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레 25:10)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회개혁 차원에서 땅의 회복, 노예 해방, 채무 면제 등의 법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개혁을 주기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오직 희년법만의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부자증세를 비롯한 제도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나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 신(新)신분제 사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의식한 여당의 한 정치인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몇몇 입지전적인 인물을 배출한다고 해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개천을 개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사회개혁에 관심 있는 학자들은 개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하층 계급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을 개혁하며, 소득과 자산, 상속에 대한 전향적인 조세정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패배자들을 위한 패자부활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다.

예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 5:9)라고 하시며,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핵이나 총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의 말씀인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마 10:34)에서 ‘평화’는 지배자의 거짓 평화이며, ‘칼’은 그에 대한 날카로운 저항이다. 때문에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YWCA의 목적은 개인의 존재 변화와 더불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악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예언자가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화와 안전”(사 32:17)이라고 선포했듯이, 불평등의 구조적 부정의를 방지한 채로 진정한 평화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 나누기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이 무엇이니? 무얼 하고 싶니?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니?” 어렸을 때 부터 늘 듣고 자란 질문이자, 우리가 차세대에게 여전

히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너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니?” 또는 “네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니?”라고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 모르긴 해도 드물 것이다. 만약 내 아이에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니?”라고 지속적으로 묻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적어도 테러와 전쟁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이 가난과 소외로 쓰러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한 YWCA의 목적문을 따라 살다 보면 품위, 환대, 공존,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음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질문해보기

-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을 아껴 쓰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가 가능할까? 영화 <노 임팩트 맨>은 뉴욕에 사는 콜린 베번이라는 한 작가의 가족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가령 수송 거리가 짧은 근거리 지역 농산물만 먹기, 전기나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탈것 이용하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만들어내지 않기, 전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각자가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공유해보자.
- YWCA 사업에서 JPIC 운동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찾아보자. YWCA 회원으로서 JPIC 정신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성찰해보자. 또한 자신은 YWCA 사업 중에서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고 참여하는지 발표해보자.
-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문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연동되어 있다. 가령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값싸고 세련됨을 표방한다. 그런데 소비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저렴한 단가는 제3세계 여성과 아동 노동의 희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우리는 단지 세련되고 값싼 옷을 구입하는 합리적 소비를 했을 뿐인데,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부정의와 창조질서 보전을 훼손하는 구조를 우리 손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더 읽어볼 책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서울 : 새물결, 2008.
 피터 싱어 · 짐 메이스, 『죽음의 밥상』, 함규진 옮김, 서울 : 산책자, 2008.
 맨디 하گی스, 『종이로 사라지는 숲 이야기』, 이경아 옮김, 서울 : 상상외출, 2009.
 다카기 진지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김원식 옮김, 서울 : 녹색평론사, 2011.
 한윤형 · 최태섭 · 김정근,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1.
 엘리자베스 L. 클라인, 『나는 왜 패스트 패션에 열광했는가』, 윤미나 옮김, 서울 : 세종서적, 2013.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후루이치 노리토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숙 옮김, 서울 : 민음사, 2014.

우리는 왜 여기에 함께 있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동의 사명은 무엇인가? YWCA라는 이름 하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질문하며 살아간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목적이 단체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단체가 향하는 지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의 목적문은 각 개인의 삶에 존재론적 의미를 시사하고 부여한다. 따라서 단체가 천명하는 목적문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지 현재의 우리를 설명해주는 거울이며, 향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된다.

YWCA 목적문은 우리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YWCA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근본체로서 세상 속의 교회라는 가치를 통해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보편적 인류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활동의 뿌리는 성서와 기독교적 핵심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치는 단혀 있는 중

교적 신념들이 아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실천 지침이다. 따라서 이 가치는 박제되어 있는 교리로 존재하지 않고 YWCA의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야 한다. 목적에 대한 정확한 조명과 이해는 우리의 생각에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각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자아 성찰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적문 속의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성서 속에서 이해하고, 기독교적 운동사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활동의 깊이를 더해주고 그 폭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으로 표현된다. YWCA의 목적문은 이 계명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곧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가능함을 말해준다. 사랑의 방법으로 정의·평화·생명 운동의 참여를 촉구한다. 또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활동들을 하나의 목적문 속에서 이

해함으로써 그것들이 하나의 줄기로 만나고 있는 가지임을 발견할 수 있고, 무의미하게 흩어질 수 있는 개별적 활동들을 하나로 엮어냄으로써 의미화할 수 있다.

목적문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운동 지향성이다. 목적문은 단체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포괄하는 성격과 위상으로 인해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다. 우리의 목적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가치가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적문이 내포하는 사상의 의미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념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으로써, YWCA의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현상을 탈피할 수 있다.

한국YWCA는 2022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새 시대는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문 현판이 아닌, 역사를 통한 우리의 활동 속에서 보이는 지속가능한 힘이다. 우리의 운동에서 목적문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인지, 반드시 지

켜냄으로써 운동 속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어떤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적문을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인지를 고민해볼 때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YWCA 목적문을 고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YWCA의 존립 이유와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선언으로서의 목적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회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이다. 또한 목적문에 나타난 신학적·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회원YWCA의 중심 활동가(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YWCA가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행한 이 YWCA 목적문 고찰이 창립의 목적과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비전 수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1922년,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성 선각자였던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이다.

한국YWCA는 청년운동(Young), 여성운동(Women's), 기독교운동(Christian),
회원운동(Association)을 기본 신조로 하고 있으며,

세계YWCA에 속하여 120여 개국 여성들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현재 한국의 52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회원들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다.

YWCA 목적문 이해

기획 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목적문교재연구팀

기획위원 최만자 김기동 장미란 이숙진

이인경 최순양 유성희 최수산나
